J Korean Acad Nurs Vol.42 No.1, 36-47
http://dx.doi.org/10.4040/jkan.2012.42.1.36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가족 적응 경험

양진향[1] · 박현주[2] · 김송순[3] · 강은정[4] · 변상희[5] · 방지수[6]

[1]인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2]인제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 [3]침례병원 간호사, [4]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간호사
[5]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간호사, [6]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간호사

Adaptation Experience to Family of Immigrant Women in Multicultural Families

Yang, Jin-Hyang[1] · Park, Hyun-Joo[2] · Kim, Song-Soon[3] · Kang, Eun-Jeong[4] · Byun, Sang-Hee[5] · Bang, Ji-Soo[6]

[1]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Busan
[2]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Busan
[3]Nurse, Baptist Hospital, Busan
[4]Nurse, Inje University Pusan Paik Hospital, Busan
[5]Nurse, Inje University Pusan Paik Hospital, Busan
[6]Nurse, Inje University Pusan Paik Hospital, Busa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to explore adaptation experience to family among women who immigrated for marriage. Specific aims were to identify problems immigrant women face as family members and how they interact with other family members. **Methods:** Grounded theory methodology was utilized. Data were collected from iterative fieldwork wit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from 6 immigrant women as key informants, and 2 of their husbands and 2 of their mothers-in-law as general informants. **Results:** Through 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a core category emerged as "tearing down the wall in communicating". Causal conditions were feeling frustrated in one's expectations, differences in language and life style, differences in recognition, and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Strategies were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learning Korean culture, managing stress, mediating differences between family members, and introspecting. Intervening factors were support systems, burdens of child-rearing, and the condition of one's health. Consequences were rooting oneself in one's family and accepting one's life as it is. **Conclusion:**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re is a need for nurses to understand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with family members among immigrant women and to provide information and emotional support to improve the adaptation of these women to their Korean families.

Key words: Cultural diversity, Adaptation, Immigrants, Women's health, Qualitative research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사회는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세계화와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 간 인적 교류의 확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국제결혼의 증가 등에 기인하는데 그 중에서도 국제결혼의 증가는 최근 두드러진 사회현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증가추세를 보면 2000년에 전체 혼인건수의 3.5%였던 것이 2009년에는 10.8%까지 증가하였고, 이 중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국제결혼의 75.5%를 차지하였다(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0).

국제결혼의 증가는 다양한 국내외 상황과 맞물려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문제점들도 많이 표출

주요어: 문화적 다양성, 적응, 이주자, 여성건강, 질적 연구
*본 연구는 2010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10 Inje University Research Grant.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ang, Jin Hyang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633-165 Gaegum-dong, Busanjin-gu, Busan 614-735, Korea
Tel: +82-51-890-6839 C.P. +82-11-803-1203 Fax: +82-51-896-9840 E-mail: jhyang@inje.ac.kr
투고일: 2011년 4월 10일 심사의뢰일: 2011년 5월 11일 게재확정일: 2012년 2월 5일

© 2012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되고 있는데, 그 중 다문화가정의 이혼율 증가와 보건의료 문제 등이 주요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과의 이혼통계를 살펴보면 2009년도의 경우 11,692건으로 이는 우리나라 총 이혼건수의 9.4%에 해당하며 이 중 외국인 처와의 이혼이 71%를 차지하고 있어(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0)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이혼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에 성공하더라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와 가족관계에서의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고, 언어문제 및 문화차이, 가족 간 갈등, 지원체계 부족, 건강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생활만족도가 떨어지게 된다(Kim & Park, 2008). 국제결혼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키며 이 중 일부는 의료전문인의 중재를 필요로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되고 있다(Kim, 2008). 2009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들 중 지난 1년간 아파서 의료기관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45.2%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9). 이러한 이주자의 가족 관련 문제나 건강 관련 문제 등을 다룰 때 반드시 설명되어야 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이들의 적응과정이 제시되고 있다(Blomstedt, Hylander, & Sundquist, 2007).

결혼이주여성들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가족유형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은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과정을 비교적 짧은 시기에 겪으면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여 적응해나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의 가족적응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주여성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안정적으로 형성하면서 바람직한 적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주여성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Kwon, 2010)에 의하면 다양한 체계 중 가족체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 및 자녀와 더불어 가족요인은 이주여성의 적응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중 남편의 협력과 참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문화가정 관련 선행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몇 개의 변수로 파악하거나 일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주여성의 건강 관련 연구는 출산이나 고위험군 확인 등에만 초점을 맞추어(Aroian, 2001), 이들의 건강관리에 보다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만족도 조사(Kim & Park, 2008; Yang & Kim, 2006)와 의사소통, 친밀감 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Uhm, 2010)를 다루고 있기는 하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한편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질적 연구들은 생활체험(Cui, 2005), 가족갈등(Han, 2006), 문화적응(Kang, 2009; Koo, 2007; Kim & Park, 2010), 건강 관련 경험(Yih, 2010) 등을 탐구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 현황과 한국사회 적응과정을 이해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생활체험이나 가족갈등 그 자체의 내용에 국한되거나 주로 한국사회와 문화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의 적응문제가 대부분 가족관계를 형성하면서 표출되는 문제점들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가족을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탐구 결과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적응경험에 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은 1차적으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이들의 가족 적응 경험을 탐구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이들을 올바로 파악하는데 기초가 되며 이를 통하여 건강한 가족형성과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중재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주의에 근거하여 행위자의 시각으로 그 경험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근거이론방법을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가족체계내로 통합하여 적응해나가는 지 그 과정과 의미체계를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이들의 가족적응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와 관련된 간호요구를 파악하여 건강한 가족통합과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가족 적응 경험에 대한 의미체계를 이해하고 기술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이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서 가족적응을 해나가며 관련변수와 결과가 어떻게 상호 관련 되는 지를 파악하여 이들의 가족 적응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은 가족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이다. 구체적인 질문으로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은 가족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들을 경험하는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등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가족 적응 경험을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바탕을 둔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탐구하는 질적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외국인 여성 6명과 한국인 남편 2명, 시어머니 2명이다. 1차 자료 수집과 분석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이주여성에 한하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나 분석과정에서 이주여성의 가족 중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주여성의 가족 적응 경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들 가족을 통해 유의한 자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면담이 가능한 배우자나 시어머니를 참여자로 포함하였다. 이주여성들은 한국 거주기간이 3-10년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들이다. 이들의 출신국가별로는 태국이 2명, 중국이 2명, 필리핀이 1명, 베트남이 1명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가 4명, 30대가 2명이었다. 남편의 연령대는 30대가 3명, 40대가 3명이었다. 이주여성의 학력은 대졸이 1명, 고졸이 5명이었고 남편의 경우 대졸이 1명, 고졸이 4명, 중졸이 1명이었다. 이주여성의 직업은 시간제 근무가 2명, 자영업이 1명, 주부가 3명이었으며, 남편의 경우 회사원이 2명, 포크레인 기사가 1명, 일용직 3명이었다. 결혼당시 혼인상태는 이주여성의 경우 모두 초혼이었으나 남편의 경우 1명이 재혼이었다.

3. 자료 수집

참여자 선정을 위해 B시와 K군에 소재해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먼저 책임자에게 협조를 구한 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을 접촉하였다. 참여자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 그리고 면담내용 녹음과 함께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과 언제든지 참여자 의사에 따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참여자에게 협조를 구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0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이었으며 참여자 별 면담 횟수는 2-4회로 1회 면담 시 소요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였다. 면담장소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내 상담실이나 참여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개방적이고 반구조적 질문형식으로 참여자 개인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도록 하였다. 주요 질문내용으로는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면서 경험한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도움이되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등이었다. 그 외에 면담이 가능한 가족의 구성원별로 다문화 가족형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다. 참여자와의 면담 중 의미전달이 불분명한 내용은 다시 질문하여 확인하였고, 해당참여자를 소개한 다른 이주여성이 배석한 경우 통역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면담내용은 녹음내용을 들으면서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그대로 필사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였고 참여자의 비언어적 행동도 함께 관찰, 기록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과 함께 순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가족 적응 경험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Strauss와 Corbin (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원자료의 내용들 간에 계속적인 비교분석을 하였고, 미비한 부분이나 명확하지 않은 내용은 메모를 해 두어 다음 방문 시에 보충질문이 이루어졌다. 근거이론방법에 따라 개방코딩, 축코딩 및 선택코딩의 단계를 거쳤는데, 개방코딩에서는 행간분석과 초점분석을 통하여 자료를 분류하고 비교하면서 개념화하였고 유사한 개념들끼리 묶는 범주화 작업을 하였다. 축코딩에서는 주요 범주들을 분석하여 관련짓는 작업을 하였으며, 선택코딩에서는 모든 분석적인 작업을 통합하여 핵심범주를 확인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 때부터 시작한 메모와 도식을 이용하여 분석된 자료의 추상화와 이론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분석의 전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1차 분석에서는 이주여성들로부터 도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각 코딩단계를 통해 전반적인 윤곽을 파악하였으며, 2차 분석에서는 1명의 이주여성과 2명의 이주여성 남편들, 그리고 2명의 시어머니를 참여자로 추가 면담하면서 1차 분석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5. 연구 결과의 타당성 확립

연구의 타당성을 확립하고자 Meadows와 Morse (2001)가 제시한 검증(verification), 확인(validation), 및 타당도(validity)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검증기준은 연구 방법에서 제시했듯이 자료 수집과 분석 절차를 따라 진행하였고, 현장일지, 메모, 연구 관련 개인일지 등을 비교하면서 기술하는 작업을 연구가 완결될 때까지 계속함으로써 충족되었다. 확인기준은 다양한 실제 경험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과정에서 자료의 의미에 대한 연구자들 간 상호점검, 일부 연구 참여자들의 자료점검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타당도기준은 참여자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자료 수집 및 분석을 다단계에 걸쳐 순환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그리고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교수 2인으로부터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받음으로써 충족되었다.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가족 적응 경험은 '소통의 벽 허물어 가

http://dx.doi.org/10.4040/jkan.2012.42.1.36

기'가 핵심범주로 확인되었다. 이주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한국에 와서 외형적으로 가족의 형태를 이루지만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가족 적응의 과정은 가족구성원들과 다양한 소통의 벽을 허무는 과정이었다. 하위범주는 16개가 도출되었으며 범주들 간의 관계는 <Figure 1>과 같다. 10명의 다문화가족들을 심층 면담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중심현상은 "소통의 단절"으로 나타났으며, 원인적 조건에 해당하는 범주로는 "기대의 좌절", "언어 및 생활양식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 그리고 "차별과 편견 지각"이 도출되었다. 중심현상에서 파악되는 맥락에 해당하는 범주로는 이주여성의 "한국가족에의 적응 의지"로 나타났으며,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요인에 해당하는 범주로는 "지지 체계", "자녀 양육의 부담감", 그리고 "건강 상태"가 도출되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는 "한국어 배우기", "한국문화 익히기", " 스트레스 관리하기", "상대방과 차이 조율하기", 그리고 "자기 성찰하기"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결과로는 "내 가족으로 뿌리내리기"와 "있는 그대로의 삶 껴안기"가 해당 범주로 도출되었다.

1. 원인적 조건

1) 기대의 좌절

이주여성들은 결혼 당시 한국사회나 남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지 않았거나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입국과 동시에 남편과 그 주변 환경을 볼 때 자신의 기대와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이주여성은 한국남편을 통해 경제적 여유와 행복한 가정을 기대하였으나 남편의 직업은 불안정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남편과 시댁식구들과의 갈등으로 결혼초기부터 힘든 과정을 겪어야 했다. 이들은 자신의 희망대로 남편감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혼중개인의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만 믿고, 또는 지인의 소개로 짧은 만남을 통해, 결혼을 결정한 자신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후회하였고 결혼에 대해서는 속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 여기 와서 행복하고(싶었는데) 왜 옛날에 얘기한 거 공장도 있어, 차도 있어, 돈도 있어, 근데 내가 여기 한국 왔어요.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 다 없어요.(이주여성 2)

이와 같이 이주여성이 한국 남편에 대해 여러 가지로 기대가 많았던 것처럼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처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다. 국내에서 결혼할 여성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한국 남편은 경제수준이 더 낮은 국가 여성과의 결혼을 고려하여 마침내 결혼을 하였으나 한국 남성으로서의 가부장적 성향은 그대로 남아있어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순종적이고 가정에 헌신적일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실제는 이와 많이 달랐다고 토로한다. 이주여성은 모국 내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나 상위에 있었고, 한국남성이 기대하는 현모양처의 모습과는 달랐다.

> 한국정서 상으로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무슨 말 하면은 싫어도 예하고 순종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아니래요. 시어머니하고도 잘 싸운대요. 중국여자랑 결혼하면, 중국은 아직까지도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른을 공경하고 뭐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좀...(남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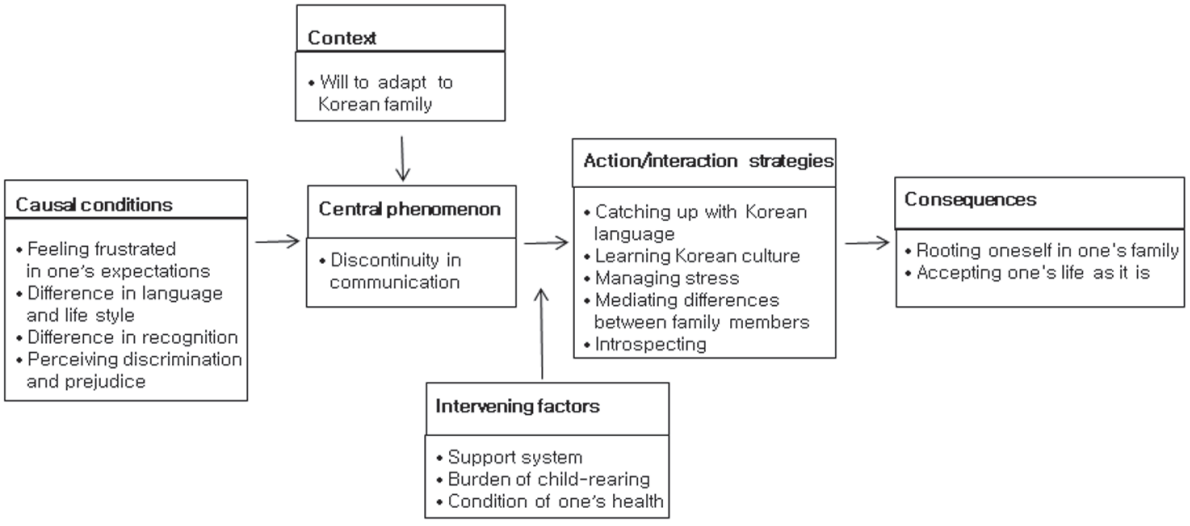

Figure 1. Adaptation experience to family of immigrant women in the multicultural family.

한편 이주여성의 시어머니의 경우에도 새로 맞이하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늦은 나이에 혼자 사는 것보다는 외국여자라 하더라도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여 국제결혼을 받아들였다. 시어머니는 한국 며느리에게 하듯 일일이 가르쳐 주고 자기사람으로 만들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어른에 대한 공경 등 전통이나 생활양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고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내가 나가도 인사도 안하고 들어와도 안하고... 일일이 가르쳐도 그때뿐이고... 나도 속이 상해요. 나는 편하게 대한다고 하는데 별로 말도 안하고 있고, 우리는 생각해서 해도 마음도 몰라주고, 지가 잘못해서 내가 화가 나가, 됐다고 하면 진짜 됐는 줄 알고 안해뿌고...(시어머니 1)

2) 언어 및 생활양식의 차이

이주여성은 처음 입국하여 모든 것이 낯설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었다. 작게는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에서 남편은 물론 다른 가족구성원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애는 언어의 차이였다.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족에게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표현하기 힘들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두려움이 앞서 자신감을 갖고 친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첨엔 ○○아빠랑 대화도 안되고 힘들어 울었어. 왜 울어? 물으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모르잖아요. 뭐하고 싶어? 그러면 뭐하고 싶은 말 모르잖아요.(이주여성 3)

이주여성들은 사전을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으나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해도 생기고 남편과 다투기도 하였다.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되었지만 존댓말, 반말, 관용어의 사용과 심층적인 의미 등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언어자체의 뜻보다 그것이 내포하는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웠고 이는 오히려 문화적인 차이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주여성은 대화 속의 언어를 그 자체로 이해하고 행동함으로써 의도와는 달리 가족들에게 지적을 받아 갈등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 중의 하나는 음식의 차이였다. 이주여성 모국의 음식은 남편이나 시댁식구 모두 싫어하거나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 모국 요리는 포기하게 되고 한국음식 조리법을 배워나가야 했다. 이들은 된장이나 마늘, 고추 같은 양념을 많이 사용하는 한국음식은 만들기도 어렵고 먹기도 힘들었다고 토로하였다. 이주여성 3의 경우 출산 후 몸조리에서나마 모국의 산후조리 음식을 먹고자 하였으나 시어머니의 반대로 시도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족발하고 아니면 생선 그게 젓이 잘 나와요. 생선을 먹는데 국물 다 마셔요. 그러니까 산모가 애기 놓고 그런 음식을 먹는데 한국 시어머니는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몸조리를 하냐고 미역국을 먹어야 젖도 잘 돌고 하니까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인다 이거죠.(이주여성 3)

3) 사고방식의 차이

일상생활에서 언어와 생활양식의 차이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비해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활태도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방식의 차이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비가시적인 부분이다. 이주여성은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의 태도나 행동을 자신의 사고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서로 간에 갈등이 쌓여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은 이주여성의 모국문화 즉 모국음식이나 모국어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행동방식 변화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섭섭함은 물론 저항감이 느껴졌다. 이주여성 1의 경우 모국에서 남녀평등과 분담식 가사 일에 익숙했던 것에 비해 한국에서 가사일과 육아는 전적으로 아내의 몫이었고 가족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 매일매일 고역이었다고 토로하였다.

부모님이 절대 남편 일시키면 안된데요. 남편을 시키면 비꼬는 투로 "니가 하기 싫으면 내가 한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죠. 자기(남편)도 할 수 있는데 가만 있잖아요. 좀 도와주면 되는데 왜 이러는지... 다 여자가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틀리구나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남자가 왕이예요 왕. 여자는 좀 힘들고...(이주여성 1)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부부가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아내나 남편 양측 모두 갈등이 쌓이면서 가족적응은 어려워진다. 남편 1의 경우 외국인 처인 아내가 한국의 직장회식문화를 이해하지 못하여 갈등이 쌓여가면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였다.

회식을 한번 했는데 한 2시 넘어서 왔나? 3시 넘어서 왔나? 자주 늦지는 않았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회식해서 늦게 오는 것을 이해시키는데 한 2년 걸렸어요. 직장에서 회식 때 맨

http://dx.doi.org/10.4040/jkan.2012.42.1.36

날 안 간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남편 1)

4) 차별과 편견 지각

이주여성들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자신들을 못사는 나라에서 왔으며,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본다는 것을 생활주변에서 느낄 수 있었다. 이주여성들은 아이들 놀이에서나 자녀학교의 학부모 모임 등에서 한국인들은 자신들과 같은 다문화가정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남편과 시댁식구들이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은 서로 간에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주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은 모국의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한 방편이면서 친정식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경제적인 수단의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주여성에게는 돈을 목적으로 결혼하여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고, 이러한 영향을 받은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은 이주여성에게 좀처럼 경제권을 주지 않았다.

돈 안줘요... 그때 어머니는 나 외국사람하니까(이니까) 절대 돈 주지 말고 돈 주면 도망가면 니가 어쩔래 하는데 그때 나 ○○동(에) 살으니까(사니까) 돈을 만지는거 없어요. 그냥 ○○아빠 월급 타오면 한 달 3만원만...(이주여성 1)

2. 중심현상

1) 소통의 단절

이주여성은 남편과 한국생활에 대한 기대가 현실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언어 및 생활양식, 사고방식의 차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편견을 경험하면서 가족구성원들과의 소통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언어상의 의사소통 문제를 넘어 서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 전반에서 주요문제로 드러났다. 소통의 단절은 서로에게 점점 무관심한 상황으로 치닫거나 이주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무시로 이어지면서 갈등은 심화되기도 하였다. 이주여성 2는 남편과의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죽고 싶은 감정을 느꼈으며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였으나, 한국의 현행법상 이주여성이 이혼을 하면 양육권 박탈과 강제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이혼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에 대한 경계심과 편견을 느끼며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여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 신랑과 대답(대화) 없어요. 마음이 진짜 너무 아파요. 너무 답답하다 며칠(동안) 한(마디) 말 안했어요. 니가 싫어. 빨리 죽어. 내가 뭐라 말해도 남편 말 안하고 가만히 있어서 갑갑하니까 차라리 때리기라도 하면 마음 편하겠다. 아무 대꾸 없어하고 몰라하고...(울음)(이주여성 2)

이주여성들은 일차적으로 언어상의 소통 문제가 있으나 상대방을 알려고 노력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한 가족이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이주여성 1은 다문화가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 쪽에서만 노력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비해 남편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 오면 한국문화나 방식에 따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고, 모국에서의 문화, 태도 등을 한국식으로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하여 살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국제 결혼, 개인적으로 하면은 하지마라 해요. 힘들어요. 하게 되면 진짜로 이해를 많이 해줘야 되요. 마음이 통해야 하잖아요. 여자만 배우라 하지 말고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받으라고 해요. 자기들(남편과 그 가족)도 받으라 해요.(이주여성 1)

살다보면 본인(아내)이 바뀔거라고... 어차피 그렇게 안하면 자기가 안 바뀌면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지예. 본인 스스로가 바뀌어야지.(남편 1)

3. 맥락

1) 한국가족에의 적응 의지

이주여성들은 한국가족에 적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분명한가에 따라 가족 간의 소통 문제 해결의 정도와 그 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활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고 작은 고비를 하나씩 넘기면서 가족과 더불어 좀더 잘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한 이주여성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한국가족과 사회에 하루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곳을 스스로 찾아다니기도 하였다. 또한 문화적 차이로 힘들었던 부분들을 처음엔 주로 참거나 피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지만 자신과 주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구체화 되면서 필요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찾거나 요청함으로써 자신의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보이는 이주여성들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늘어가지만 남편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기 힘들고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오는 좌절감을 극복하기 힘든 이주여성의 경우, 가족에 대한 애착심이 떨어지고 한국생활에 대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

기도 하였다.

일단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말도 배우고 뭐든 배워야 되는데, 제가 동사무소에 찾아가가지고 직접 찾아가가지고 물어보고 제가 공부 좀 하는데 근데 가보니까 공부 나오라 하는데 수업을 안 해요. 종일 태국 소개하라고 하고 베트남 있으면 베트남 말 소개하라고 그런 식으로... 공부역량도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많이 노력했어요.(이주여성 1)

4. 중재요인

1) 지지체계

이주여성들은 입국 후 자신의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등을 만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란 상당히 힘든 실정이었다. 또한 한국에서도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꺼려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을 하소연할 지지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주여성은 힘들 때 의지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사람으로 오로지 남편과 시댁 식구밖에 없으나, 이들과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 등으로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졌다.

한국와가지고 느끼는 거죠. 예 제가 힘들 때 아 누가 와가지고 내를 상담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더라도 당장이라도 기분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이주여성 3)

이주여성은 의료기간의 이용에도 제약이 많았다. 삼차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항상 통역을 해 줄 수 있는 보호자나 도우미가 함께 가주어야 했다. 그러나 보호자의 귀가시간이 늦고 지역사회에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역 도우미가 없었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서 더 큰 병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한국의 의료시설은 가까운 곳에 있고 훌륭하지만 이주여성에게는 손쉽게 이용하기 힘든 곳이며 멀게만 느껴지는 곳이었다.

큰 아이가 눈이 아파서 지금 한 쪽이 안 보여요. 그때 바로 가야 되는데 작년에 그냥 갑자기 망막이 떨어졌어요. 애기아빠가 바쁜데 자꾸 불러낼 수가 없어서 좀 미루다가.(이주여성 4)

한편 남편의 입장에서도 하루 종일 직장에 나가 있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아내의 힘들고 어려운 점을 일일이 헤아려 도와주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지역사회에 병원방문 등을 도와 줄 수 있는 도우미나 다문화가정 부부의 어려움을 상담해줄 전문가들이 있으면 유용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애들 아플 때 병원 같이 가주는 그런 분들 자원봉사자나 그런... 제가 늦게 마치고 오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신과 이런 쪽 아니고 부부 상담해주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매스컴이나 그런데는 잘 나오던데 막상 찾을라니까 없어요.(남편 2)

한편 이주여성들 중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하여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갈등과 긴장을 완화해 나가고 경우도 있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멘토 프로그램이 잘 활성화되어 이주여성의 가정생활과 사회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역에 따라 단기 또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곳도 있어 중요한 사회적 지지망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 집에 와서 가르쳐 주는 선생님 있어요. 한 일주일에 두 번씩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한국말 가르쳐 주고 애기와도 놀아줬어요. 선생님 한국 온지 12년 됐어요. 한국 생활도 많이 알고... 그래서 의지가되었어요.(이주여성 5)

2) 자녀 양육의 부담감

이주여성들은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한국여성과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주 여성의 한국어 구사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한 교육 관련 정보 획득이 늦어지므로 남편에게 자녀의 아빠역할을 충분히 해주기를 기대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이주여성에게 자녀교육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되었다.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제대로 적응하기도 전에 출산을 겪은 이주여성은 자녀양육에 대해 혼란을 경험하였다. 이주여성은 언어습득에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직접 한국어를 가르칠 수 없어 자녀의 한국어 표현 능력이 또래보다 늦어지게 되는 현상이라든지 모국의 자녀양육 방식과 다른 점 등은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이주여성으로 하여금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한국어와 한국문화 습득에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는 동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애들 뭘 물어보잖아요. 제가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근데 다른 엄마들은 잔잔하게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엄마 산딸기 어떻게

http://dx.doi.org/10.4040/jkan.2012.42.1.36

자라? 이러면 산딸기 자체를 모르니까. 다른 애는 물어보면 막 이렇게 자기도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희 애는 모르기 때문에...제가 좀 빨리 많이 배울라고.(이주여성 1)

3) 건강 상태

결혼 전 자유롭던 생활과는 달리 많은 제약과 갈등, 혼돈을 겪었던 이주여성은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몸도 마음도 무척 고달프게 느껴졌다. 모국에서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윤택하지는 않았으나 신체적,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친정식구들과 모국친구들을 많이 그리워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은 자신이 젊다는 이유로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가족들도 이주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주여성 4는 모국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였으며 해결되지 않는 시댁식구와의 갈등으로 일상에서 대화하기를 거부하다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낮 시간에도 수면에 빠져들거나 무기력해지는 등 우울 증세가 심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결혼하고 곧 애기 임신해서 몸도 안좋고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집에 계속 있었어요. 시어머니 만날까봐 맨날 방에 많이 있어요. 한국 와서 많이 우울하고 답답해 가지구요. 애기 낳고 우울증, 그거 산후우울증인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우울하고 말하기 싫고 그런데 그게 좀 오래 가니까 남편하고 병원 정신거기 가가지고 상담 좀 받고 그랬어요.(이주여성 4)

5. 작용/상호작용 전략

1) 한국어 배우기

이주여성이 한국가족과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주여성들도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순한 일상생활 대화는 물론 모국어에 없는 존댓말, 관용어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사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고자 하였다. 이주여성은 한국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문화센터를 이용하였다.

한국말 배울라고 여기 저기 많이 찾아다녔어요. 제대로 하는 건 대학이 좋은 것 같애요. 근데 멀고 이래저래 어렵고 그래서 또 알아보니까 막 동네 복지관에 다문화센터 생겨갖고 거기 다니면서 배웠어요.(이주여성 6)

2) 한국문화 익히기

문화적 차이는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업 중 하나이다. 이주여성들 중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하여 결혼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합숙을 하면서 김장담그기, 웃어른 대하는 방법 등 한국문화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생활가운데 몸으로 행동으로 익히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도 많았다. 친척의 소개나 연애결혼을 한 이주여성의 경우는 한국문화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여 많은 고충을 겪었다고 토로하였다.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에게 야단을 맞으면서 한국문화에 조금씩 익숙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었다.

시댁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해요. 한국요리 공부 예절 이런 거, 어른이 주는 음식은 꼭 먹어야 된대요 그렇게 교육 받아가지고 제가 회가 싫었는데 다 먹었어요.(이주여성 1)

3) 스트레스 관리하기

국제결혼에 대한 회의와 소통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은 한동안 자신을 비하하면서 스스로 고립되기도 하였다. 그런 가운데 모국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연락을 주고받거나 한국 내 모국인들 간의 모임을 알게 되어 참석하면서 정보도 얻고 정서적인 지지도 얻게 되었다. 이주여성 6은 모국인 모임에 주기적으로 참석하면서 고립감에서 벗어나 가족 같은 친밀감을 형성하였으며 한국 가족과의 생활에서 생기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가족과의 일상생활 중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아직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 4는 남편이나 시댁식구들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크게 잘못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하게 꾸지람을 듣게 되는 경우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거나 상황을 피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를 하기도 하였다.

제가 마음이 풀려야지 아니면 제 생각은 못살 거 같애요. 00 엄마가 자기 나름대로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혼자 노는 게 아니고 주위에 이렇게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다니고, 한국생활에 도움 되는 이야기도 듣게 되고.(이주여성 6)

4) 상대방과 차이 조율하기

이주여성들은 가족을 형성하여 살아가면서 결혼 초기에 가졌던 기대나 요구를 하나씩 포기하거나 차이를 조율함으로써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뿌리를 내리기를 원했다. 한국어 구사가 차츰 늘어가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해졌을 뿐 아니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에게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있었던 많은 부분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단념하면서 가족 간의 차이를 조율해 나갔다. 남편 2의 경우 아내와의 갈등을 서로 대화로 풀고자 노력하였고, 어머니와 아내의 갈등이 커지자 분가를 하였다. 어머니와 아내는 떨어져 지내는 동안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 오히려 관계형성에 도움이되었다고 한다.

> 처음엔 한국말 잘 안되니까 좀 싸우고 또 문화가 틀려서 좀 싸워 했어요. 말이 좀 트이고 남편을 뭐 좀 이해할려고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하니까 아 이 사람이 이런 기분 가졌구나 알게 되고.(이주여성 5)

5) 자기 성찰하기

이주여성들은 결혼 초기에 다른 이주여성들의 비교적 성공적인 결혼사례를 듣거나 볼 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초창기의 힘든 점들이 조금씩 극복되어 가면서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남편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소중한 자녀가 있으므로 가족에 대해 그 소중함을 때때로 자각하곤 하였다. 이주여성 4는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고, 외국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 등으로 한국생활이 힘들 때도 많지만 가족으로서의 책임감 등을 깊이 생각하면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래도 내가 선택했으니까 끝까지 살아야 되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아이가 생기면 책임져야 하고... 생각을 좀 바꿔야 되요.(이주여성 4)

6. 결 과

1) 내 가족으로 뿌리내리기

한국남편과의 결혼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다양한 차이와 편견을 경험하면서 가족 내에서 소통의 단절을 가져왔던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모국과 다른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다름의 차이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이주여성은 가족구성원 각자의 소중함을 자각하게 되고 가족 내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내 가족"이 되어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주여성 5의 경우 이제는 한국가족이 있는 자신의 집이 모국에 있는 친정집보다 더 편하다고 느끼고 한국에서의 생활도 상당히 익숙해진 자신을 발견하였다.

> 이제는 이 집이 내 집, 내가 친정집에 가면 그건 친정 집이예요. 내 집이 아니고. 여기 내 집에 있으면 더 편해요. (중략) 나도 지금 한국사람 아니지만 나도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괜찮아요.(이주여성 5)

이주여성 3의 경우 남편은 물론 시댁식구들과도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가족으로서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는 남편 가족의 일원이되었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한다. 또한 모국친구가 돈을 벌러 같이 다니자고 하였지만 자녀양육이나 집안 살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거절하였다고 한다.

> 어머니가 많이 칭찬 해주시는데 지난 주에 시아버지 제사라서 형님하고 일했어요. 어머니가 이거 00엄마가 만든거야. 묵어봐라 어떻게 재수씨 응 맛있네 잘 만들었네. 몰라 진짜 잘 만들었나? (중략) 나 돈 많이 없어도 그냥 내하고 가족하고 지금 사는 거 젤 행복해요.(이주여성 3)

2) 있는 그대로의 삶 껴안기

남편이 안정적인 직업이 없거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주여성은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 남편만 의지하고 살림만 하고 있을 수 없어 일자리를 찾아보지만 외국여성이며 한국 내 입지가 불안정한 상태로서는 취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주여성은 경제적으로 힘들 뿐 아니라 남편의 이해와 지지가 제대로 없는 가운데 마음의 소통까지 차단되어 있는 현실을 불평하고 한탄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선택한 결혼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과 어려움을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들에게 자녀의 존재는 가족을 형성하고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주요한 원동력이되었다. 현실은 어렵고 미래는 불안하지만 이들은 자녀를 통해 현재의 삶을 수용하면서 살아내고자 하였다.

> 우리 신랑 며칠 일하고 또 안나가고 또 담배 피워하고 또 술먹고 이렇게 계속 살아요. 그래도 내가 진짜 도망 안갔어요. 참고 뭐 기도하고 우리 애기, 예쁜 딸하고 있고 싶어.(이주여성 2)

논 의

최근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아시아권

http://dx.doi.org/10.4040/jkan.2012.42.1.36

여성들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지역사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이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다는 것은 곧 한국가족의 일원으로 편입되어 내 가족으로 뿌리를 내리는 일이며, 이는 사회문화적 측면 뿐 아니라 보건의료적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가족 적응 경험을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핵심범주는 "소통의 벽 허물어가기"로 나타났다. 이주여성들은 언어나 생활양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소통의 단절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이주초기부터 상당기간 가정에서 아내, 며느리의 위치에 있었지만 소통의 문제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가족으로 뿌리내리기는 매우 힘들었다. 실제로 한국의 다문화가정이 갈등을 겪는 것은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보다는 가족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ulticultural Family, 2011).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에 대해 연구한 Han (2006)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 남편과 시댁식구들은 일방적으로 이주여성들이 한국문화에 빨리 동화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없어 이로 인한 실수나 차이를 개인의 성격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높아 가족 간의 갈등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Yang과 Yon (2009)은 이주여성들이 지각하는 적응상의 문제는 관계설정에서의 스트레스라고 보고한 바 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이주여성들이 한국 가족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안내를 받지 못한 채 일상생활에서 이를 스스로 터득해나가는 힘든 적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과, 남편 및 시댁식구들은 상대방의 문화를 배우거나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가족들은 대체로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경우가 많으며 적응을 이주여성 혼자서 감당해야 할 몫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지지체계는 이주여성 당사자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간혹 남편들이 포함되기도 하나 단기적이거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지역사회 프로그램에서는 이주여성들의 모국문화를 포함하고 확대가족을 포함하는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여성은 한국사회와 남편에 대해 기대가 컸던 만큼 좌절감도 컸으며, 한국가족들도 이주여성에 대해 사회전반에 팽배해있는 부정적인 인식의 영향을 받아 서로 간에 신뢰감이 형성되지 못하여 더욱 소통의 어려움을 가져왔다. 이는 이주여성의 생활체험의 본질적 주제가 "다양한 관계 속에서 깨어진 한국이민의 꿈"으로 집약된 Cui (2005)의 보고에 의해 지지되었다.

한편 이주여성의 소통의 문제는 한국가족에의 적응 의지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이주여성의 한국문화 적응은 사회교육이나 제도적 지원을 넘어 이주여성 자신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주여성이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지를 가지면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단계로 진입하였다는 Kim과 Park (201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Yang과 Wang (2003)의 연구에서 결혼 이주여성의 생활 및 건강의 주요관심사는 이민생활 적응과 가족 지속성(continuity)으로 나타나, 이주여성의 적응은 가족통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Lundburg (1999)의 연구에서 이주여성의 건강에 대한 주요 의미 중 하나는 새로운 이주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며, 이들의 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가족으로부터의 정신적 지지였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이주여성의 적응의지를 높여줄 수 있는 전략으로 가족 중심적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주여성들이 가족적응 과정에서 사용한 전략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 중 상대방과 차이 조율하기는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전략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Kim과 Park (2010)의 연구에서 이주여성의 문화 적응의 의미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이주여성의 사용전략 중 스트레스 관리하기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한 긍정적인 대처가 있는 반면, 힘든 상황을 회피하거나 억누르는 등의 부정적인 대처도 많았는데 비교적 한국거주기간이 짧은 이주여성일수록 후자의 경향이 많았다. 농촌 지역 이주여성의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 연구한 Yang과 Yon (2009)은 환경개선을 요구하기와 같은 행동반응도 나타났지만 감정 억압하기, 후회와 자책하기 등의 정서반응도 함께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 Rosenberg, Richard, Lussier와 Abdool (2006)은 이주여성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이민사회에 먼저 와서 적응되어 이중 문화를 가지고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주여성을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함을 제시하였다.

이주여성의 사용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요인들 중 지지체계의 경우 가족, 친구, 이웃 등 비공식적 자원의 도움이 이주여성의 가족 적응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인적 자원체계를 개발하고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Song, Jee, Cho와 Lim (2008)의 연구에 의하면 이주여성의 적응에서 힘들었던 요인들 중 하나가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해서"였으며, 또한 정보가 부족해서 의료보험 혜택, 교육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여성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의 지원과 더불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이주여성은 결혼 후 한국사회나 가족에 적응

할 충분한 기간을 갖지 못한 채 임신, 출산, 양육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체적, 심리적 건강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이주여성 955명을 대상으로 생식건강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신·출산 후 빈혈 19.6%, 산전·후 출혈 9.4%, 체질량지수 18.5 미만인 저체중 17.6%, B형 간염 8.2%로 나타나 이주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9). 또한 네덜란드 거주 이주여성의 경우 65%가 자신의 건강을 "좋지 않다"로 평가하였는데(Schoevers, van den Muijsenbergh, & Lagro-Janssen, 2009), 향후 이주여성의 건강문제는 다문화 사회에서 반드시 주목하고 관리하여야 할 보건의료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 가족발달에 따른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Lehti, Hammarstrom과 Mattsson (2009)은 이주자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이들의 이야기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주여성들의 효과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이 문화간 의사소통이나 임파워먼트 등에 관해 특별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Schoevers et al., 2009). Ahmad 등(2004)은 기존 건강증진모형을 이주여성들에게 적용할 경우 효과성과 효율성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발생하므로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의사소통 모형을 통해 재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이주여성의 건강관심사나 건강행위 등 건강과 관련된 경험을 집중적으로 탐구한다면 보다 근원적이고 구체적인 건강관리를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주여성의 소통의 벽 허물어가기의 결과는 "내 가족으로 뿌리내리기"와 "있는 그대로의 삶 껴안기"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주여성의 적응과정에서 마지막 단계가 "공동체 구성원으로 뿌리를 내리는 단계"로 나타났다는 Koo (2007)의 보고와, 이주여성은 가족의 정체성 형성과 긍정적 미래 설계, 사회 참여 등을 통해 안정적 적응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Kang (2009)의 보고와 부분적으로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 그러나 Kim과 Park (2010)은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 과정에서 혼돈 가운데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어 한국생활에 회의를 갖게 되는 양상도 나타났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주여성들의 가족적응은 자신은 물론 가족전체의 안녕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므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파악된 관련요인들과 의미체계를 고려하여 이들의 적응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이주여성들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일방적 통합을 강요하는 것은 적응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또한 다문화가정의 적응력을 저해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서로의 다름을 비판하거나 거부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이주여성들이 모국문화를 유지하면서 한국문화를 수용해 가는 것이 한국가족과 사회에 적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간호사는 다문화가정 가족구성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가족 적응 과정과 문화적 관습에 민감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적절한 건강관리를 계획하고 제공하는 것은 결국 이주여성 및 그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일임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가족 적응 경험에 대한 의미체계를 이해하고 기술하며 이에 관한 실체이론을 도출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 참여자는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이주여성과 이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유의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일반제보자를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가족 적응 경험의 핵심범주는 "소통의 벽 허물어가기"로 파악되었다. 이주여성이 가족 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소통의 단절은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을 넘어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이 통하는 인격적 소통의 문제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이주여성들은 결혼 후 한국가족에 편입되면서 다양한 소통의 벽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한국가족 적응은 가족 구성원들과 이러한 소통의 벽을 허물어 가면서 가족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고 뿌리를 내리거나 현재의 삶이 불안정하지만 자녀의 존재를 통해 현실을 수용하고 살아나가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주여성이 한국가족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문제는 이들에게 부여되는 출산과 육아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주여성 자신 뿐 아니라 가족전체의 건강과 안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지역사회에서나 임상실무현장에서 이주여성을 대할 때 먼저 이들의 가족체계와 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가족적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요한 지지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주여성들이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고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가족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가족적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간호요구를 파악하고 보다 건강한 가족통합과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가능케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http://dx.doi.org/10.4040/jkan.2012.42.1.36

REFERENCES

Ahmad, F., Shik, A., Vanza, R., Cheung, A., George, U., & Stewart, D. E. (2004). Popular health promotion strategies among Chinese and East Indian immigrant women. *Women and Health, 40*, 21-40.

Aroian, K. J. (2001). Immigrant women and their health. *Annual Review of Nursing Research, 19*, 179-226.

Blomstedt, Y., Hylander, I., & Sundquist, J. (2007). Self-reported integration as a proxy for acculturation: A qualitative study. *Nursing Research, 56*, 63-69.

Cui, J. (2005). A qualitative study on the life experience for the Korean-Chinese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in adjustment period. *The Journal of Asian Women, 44*, 329-364.

Han, G. S. (2006). Family life and cultural encounter of foreign wives in rural area.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39*, 195-243.

Kang, Y. M. (2009). *A qualitative study on the adapting process of immigrant wive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Asan.

Kim, H. S. (2008).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4*, 248-256. http://dx.doi.org/10.4069/kjwhn.2008.14.4.248

Kim, J. H., & Park, O. I. (2008). Comparative analysis on family conflict and life satisfaction between rural and urban immigrated women. *The Korean Journal of Rural Sociological Society, 18*, 127-160.

Kim, Y. S., & Park, J. Y. (2010). Experience of acculturat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Th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0*, 269-298.

Koo, C. H. (2007). *Grounded theory: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immigrant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0). *Statistics on multi-cultural family*. Retrieved March 14, 2011, from http://www.kosis.kr

Kwon, M. H. (2010). A study on acculturation stress of im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 men.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2010 Conference Proceedings, 2010*, 2174-2197.

Lehti, A., Hammarström, A., & Mattsson, B. (2009). Recognition of depression in people of different cultures: A qualitative study. *BMC Family Practice, 10*, 1-9. http://dx.doi.org/10.1186/1471-2296-10-53

Lundberg, P. C. (1999). Meanings and practices of health among married Thai immigrant women in Sweden.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10*, 31-36.

Meadows, L. M., & Morse, J. M. (2001). Constructing evidence within the qualitative project. In J. M. Morse, J. M. Swansen, & A. Kuzel (Eds.), *Nature of qualitative evidence* (pp. 187-200). Thousand Oaks, CA: Sag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9). *A survey on the reproductive health of the immigrant women of international marriage*. Retrieved March 12, 2011, from http://www.mw.go.kr

Multicultural Family. (2011, January 24). *Yonhap news*. Retrieved April 05, 2011,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882080

Rosenberg, E., Richard, C., Lussier, M., & Abdool, S. N. (2006).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in family medicine: Lessons from the field.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61*, 236-245. http://dx.doi.org/10.1016/j.pec.2005.04.002

Schoevers, M. A., van den Muijsenbergh, M. E., & Lagro-Janssen, A. L. (2009). Self-rated health and health problems of undocumented immigrant women in the Netherlands: A descriptive study. *Journal of Public Health Policy, 30*, 409-422. http://dx.doi.org/10.1057/jphp.2009.32

Song, M. K., Jee, S. H., Cho, E. K., & Lim, Y. W. (2008). A study on the parental experience of a foreign mother in a multicultural famil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 Psychotherapy, 20*, 497-517.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Uhm, D. (2010). Effects on couples' communication, intimacy, conflict and quality of life by foot massage between immigra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0*, 493-502. http://dx.doi.org/10.4040/jkan.2010.40.4.493

Yang, J. D., & Kim, C. T. (2006).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foreign married immigrated lady's marriage satisfaction in the rural community.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16*, 1-18.

Yang, S. M., & Yon, M. H. (2009). A study on the enculturative stressors, stress responses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rural area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therapy, 21*, 943-966.

Yang, Y. M., & Wang, H. H. (2003). Life and health concerns of Indonesian women in transnational marriages in Taiwan. *The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1*, 167-176.

Yih, B. S. (2010). The health-related experiences of foreign wiv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2*, 477-487.